

2006학년도

석사학위논문

갈 배 의 기 독 론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최 정 자

갈 배 의 기 독 론

지도 : 최 윤 배 교수

이 논문을 목회신학석사학위(Th. M. M.)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최 정 자

최 정 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최 윤 배 교수 _____ 인

부 심: 김 명 용 교수 _____ 인

부 심: 신 옥 수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5년 12월

감 사 의 글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해 주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학원에서 2년간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하심으로 구체적으로 목회현장에서 필요한 학문으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적이면서도 아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훌륭한 동료자들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갈뎡의 기독교론”이란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차차 알게 된 사실은 목회현장에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가를 생각하니 지난 시간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만학(晩學)의 제자로서 논문을 쓰기까지 조직신학의 기초를 닦아주신 김명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면서 좌절감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머리를 스쳐갈 때마다 주심을 맡으신 최윤배 교수님께서서는 심한 책망을 아끼지 않으시며, 또 다시 격려와 지지로 용기를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밝은 모습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셨던 신옥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염리교회의 최병관, 윤선향 두 분 목사님과 황경호 전도사님의 기도와 배려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염리교회의 학생부 부장님과 교사들 및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양가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는 사랑하는 남편 장명옥 권사께 감사드리며, 지지를 아끼지 않던 두 아들, 영훈이와 세훈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주후 2005년 12월 5일

최 정 자

약 어 표

Inst.,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목 차

1. 서론	1
A. 연구 동기와 목적.....	1
B. 연구 범위와 방법.....	7
II. 구약과 신약의 관계	8
A.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	9
B.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12
III.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17
A. 참 인간이신 예수그리스도.....	17
B.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9
C.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하나됨.....	21
IV.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24
A.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상태 속에서 사역.....	24
1. 겸비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28
a. 성육신.....	29
b. 고난과 죽음	37
c. 장사되심.....	46
d. 음부에 내려가심.....	48
2. 승귀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51
a.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51
b.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57
c.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62

B.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64
1.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67
2. 그리스도의 왕직	69
3.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72
 V. 결론.....	 75
A. 요약	75
B. 평가	79
 참고문헌.....	 82

목 차

[illegible]

I. 서론

A. 연구 동기와 목적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여기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었다. 고대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론과 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론이 전개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문제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두 본성론의 문제였다.

고대교회에서는 본성론을 중심한 기독교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면, 계몽주의 이후 근대교회에서는 기능적 기독교론, 즉 ‘예수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했고, 예수의 참된 인간존재, 그의 하나님의 의식, 그의 내적인 삶이 중요한 문제였고, 이 문제는 인간의 참된 인간성, 그의 본래적 존재, 내면적 자기동일성에 관한 질문과 결부되어 있었다. 예수는 신인(神人)으로 이해되지 않고 근대의 인간론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Vorbild) 또는 원형(Urbild)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¹⁾ 여기서 예수의 신성은 약화되어 그는 하나의 이상적 인물이나 모든 인간의 원형으로 혹은 종말에 완성될 계시의 선취자로 격하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종류의 인간의 원형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에게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인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이다.²⁾

그러면,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성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단지 한 인간으로서 예수에 대한 제 삼자적 탐구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라는 실재와의 인격적 만남에 의해 생성된 고백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 상은 애초부터 기독교론적이었으며,

1)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I』 I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58쪽.

2) 위의 책, 160쪽.

구원론적이었다.³⁾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서 기독교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신학에서도 기독교론은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다. 기독교 신학에서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계시현실로부터 규정되고 설명되어진다. 기독교 진리의 모든 내용은 기독교론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성령론도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에 따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한 영(靈)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고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다. 창조론도 기독교론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창조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심으로써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으며, 중국에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론도 기독교론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적인 인간의 원형(原形)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선하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함으로써 도달하여야 할 종말론적이고 이상적인 전 인간의 모형이다.⁴⁾ 물론 교회의 존재와 삶도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지속시키고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친히 세우셨으며,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몸이신 교회 안에 임재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의 현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⁵⁾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성은 그리스도를 모든 기독교의 근저에 있는 이념이나 모든 기독교적 진술을 규정하는 중심적 원리로 이해하는 관념주의적 기독교론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를 역사의 전환의 중심으로서 역사적 시공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으로 파악하는 역사적 기독교론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론의 중요성과 중심적인 위치를 잘 드러내

3)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6쪽.

4) 위의 책, 27-28쪽.

5) 위의 책, 28쪽.

준다.⁶⁾

그리스도론은 조직신학의 중심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론은 조직신학의 체계에 있어서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 체계의 중심이요 왕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⁷⁾ 성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때에만 기독교 성서 해석학 일 수 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기대로 해석되어지며, 신약은 이미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서 해석되어진다.⁸⁾ 본훔퍼(Dietrich Bonhoeffer)에 의하면, 그리스도론은 주제가 그리스도 그분 이시고,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분이기에 때문에 특수한 훈련이 요구된다. 그리스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학문이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로고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은 그분의 초월성으로 말미암아 학문의 왕관이 되고, 그분이 밖으로부터 들어오셨기 때문에 학문의 중심이 된다.⁹⁾ 이상과 같이 조직신학의 모든 각론들은 기독교론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자 칼뱅(John Calvin, 1509-1564)은 그의 즈네브(Genève) 활동시절에 대학을 세웠고, 유럽 각국으로부터 몰려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그들 중에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와 존 녹스(John Knox, 1505-1572)가 대표적이다.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 아브라함 까이빠(A. Kuyper)와 미국의 위필드는 칼뱅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명명했다.¹⁰⁾ 베틀즈(Ford Lewis Battles)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타난 칼뱅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교리교육 정신(catechetical intent)’을 소유한 기독교 교육자라고 평했다.¹¹⁾ 오토 베버(Otto Weber)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를

6) 위의 책, 29-30쪽.

7)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138쪽.

8)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29쪽.

9) Dietrich Bonhoeffer, *Christology*, 이종성 역,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회, 1984), 34쪽.

10) A.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Grand Rapids : Eerdmans, 1946); 이문규, “칼뱅의 성령론”(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9), 1쪽에서 재인용.

11)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2003), 351쪽.

제외하고는 칼뱅 만큼 교회론에 관심을 둔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칼뱅 신학에서 교회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칼뱅 연구가들이 저마다 칼뱅 신학의 중심 주제를 신론, 계시론, 교회론, 예정론, 성령론, 인간론, 말씀론 등의 방면에 기울였지만, 사실상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만큼 칼뱅 신학을 기독교론 중심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 우리는 니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에 의하면, 칼뱅은 신구약성서를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로 일관하고 있다. 칼뱅이 그의 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진리들은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려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갖는다.”¹³⁾ “성서의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언제든지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봉사직을 수행했다.”¹⁴⁾ 이상에서 우리는 칼뱅은 철저히 기독교론 중심의 신학자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¹⁵⁾

본 논문의 주제를 기독교론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역사적 이유로서 16세기 역사적 정황과 21세기인 오늘날 역사적 정황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16세기 당시 칼뱅은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논쟁 속에서 특히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찢고, 손상시키고, 공허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직분을 박탈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까지도 망령되이 여겨버린다.”¹⁶⁾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직과 제사장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베드로 수위권과 로마교황 수위권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이다. 이들의 마리아론도 예수 그리

12) Otter Weber, *Die Treue Gottes in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역, 칼빈의 교회관(서울: 풍만출판사, 1985), 44. 현요한, “칼빈의 교회론”(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교신학대학교 대학원, 1986), 1쪽에서 재인용.

13)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아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0쪽.

14) 위의 책, 29쪽.

15) 위의 책, 19쪽.

16) 존 칼빈, 『골로새서 주석』(서울: 성서원, 2001), 534쪽

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직을 침식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하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으며, 원죄가 없고 죄 없는 삶을 살았으며,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이다. 특히 구속사역에서 마리아의 중보자성이 주장되어,¹⁷⁾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중보자직이 희석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사제도와 성직자의 사도권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권을 사제들이 찬탈하고 있다.¹⁸⁾ 1870년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 무오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무오성은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에 속한 것이지, 인간의 본질이나 속성에 속할 수가 없다. 여기서 교황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¹⁹⁾

칼뱅은 그리스도의 참 인간성을 중심으로 16세기에 특히 재세례파들과 논쟁했다. 재세례파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주장했다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천상적 육신’(heavenly flesh)을 입고 오셨다고 주장하여 칼뱅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6세기의 칼뱅의 기독교론은 21세기 오늘날에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역사적 상황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종교적 다원주의 상황과 절대적 가치가 문제시되고, 상대적 가치와 대화와 타협의 관용이 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 10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기독교학회에서 “종교다원주의와 신학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종교다원주의가 심도 깊게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²⁰⁾ 이와는 정반대로, 1991년 10월 10일에 열린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다원화”라는 주제로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지하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²¹⁾

17)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149-50쪽.

18) 위의 책, 157-58쪽.

19) 위의 책, 161-62쪽.

20) 한국기독교학회(편), 『신앙과 신학』 제7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5-6쪽.

21) 한국복음주의신학회(편), 『성경과 신학』 제11집, (서울: 기독지혜사, 1992), 7-8쪽.

현대사회의 특징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다원주의의 파급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폴. F. 니터에 의하면, 개신교 주류의 신학자들은 바르트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모델과 분명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모든 종교들은 구속사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니터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그리스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²²⁾ 그는 또한 앞으로 인류의 종교적 삶은 적어도 종교다원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영위될 것이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변경에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요, 여행자들의 이야기에서 오르내리는 흥미 거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²³⁾ 실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존적 현실이며,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독교 절대성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모든 종교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비신앙적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²⁴⁾

조직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론을 연구하고, 칼뱅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론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신학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에 흔들리는 기독교론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기독교신학의 중심에 기독교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모든 신학에 이르는 올바른 지름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인간관을 제시해 주며,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이해를 도우며, 실제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2) 폴 F. 니터, 변선환 역,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69쪽.

23) 위의 책, 17쪽.

24) 조재국, “에큐메니칼 학의 한국교회 수용에 대한 성찰,” 한국기독교학회 엮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0), 317-18쪽.

B. 연구 범위와 방법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독교론은 모든 신학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되기 때문에 갈뱅의 기독교론은 신문, 계시론, 교회론, 예정론, 성령론, 인간론, 말씀론, 국가론보다도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하여 제 I장에서 서론을 다루고, 제 II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문제, 즉 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다음에 제 IV장에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의 삼중직(*munus triplex*)을 중심으로 다루며,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자료로서는 갈뱅의 『기독교 강요』(1536)과 최종판(1559)과 『갈뱅의 요리문답』(1537 /1541 /1542) 등을 중심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맥네일(John T. McNeill)의 영역본을 필요시에는 사용하였으며, 이 주제에 관련되는 갈뱅의 주석들과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II. 구약과 신약의 관계

고대교회 당시 마르시온주의와 마니교처럼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날카롭게 분리시켰다. 그들 모두는 구약과 신약을 상치시킴으로써, 구약을 완전히 무시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된 모든 성서가 교회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규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이 이 같은 이원론 속에 뿌리잡고 있다고 부처는 그들을 비판했다.²⁵⁾ 부처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없고, 상호 일치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의 경륜의 방법과 형식에 관한 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와 구별이 있지만, 이 두 계약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상처와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도 면에서 차이인데, 부처가 이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표현들은 ‘비교급’으로 이루어진다.²⁶⁾ 새 계약에서는 더욱 폭넓은 계시와 더욱 강력하거나 풍성한 성령이 중요하다.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구약보다 더욱 더 명료해졌고, 더욱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더욱 더 폭넓게 확산된다. 계약의 약속은 복음 속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약속되었고 받아들여졌다.²⁷⁾ 신약과 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점과 차이점이 부처의 『복음서 주석』(1528), 『요한복음서 주석』(1528) 속에 나타난다. 두 계약 속에 나타나는 일치성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아들, 동일한 성령을 가졌다. 부처가 위에서 이해한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갈뱅과 전적으로 일치한다.²⁸⁾

니젤에 의하면, 개혁교회는 구약을 기독교론적으로 읽는다. “그들의 교회 및 정치적 실행을 위해서는 신약성서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구약성서의 근원에까지 소급해 가야만 했고, 따라서 거기에 어떤 통일된 권위를

25) 최윤배, “갈뱅, 그의 생애와 사상”,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의안, 2005), 150쪽.

26)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학회(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24-25쪽.

27) 위의 책, 230쪽.

28) 위의 책, 234쪽.

필요로 했다.”²⁹⁾

방텔에 의하면, 칼뱅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두 종류의 논쟁자들을 만났다고 말한다. 수많은 재세례파와 로마가톨릭교회에 반대하여 『기독교 강요』(1559)에서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했다.³⁰⁾ 우리는 본장에서 칼뱅이 이해한 신약과 구약 사이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신구약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A.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

칼뱅의 경우, 신약과 구약은 내용상으로 일치한다. 방텔에 의하면, 칼뱅에게서 신구약의 내용은 동일한 그리스도이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이 현재 실체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약속의 형태로 보증하고 있다. 신약은 선택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깨뜨려진 옛 계약의 재확립일 뿐이다. 나아가, 모든 참된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구약과 무관할 수 없으며, 신구약의 내용은 동일한 그리스도이다.³¹⁾ 부처는 옛 백성과 새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성의 의미에 대해 그의 『에베소 주석』(1527)에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부처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의 내용에 있다고 말한다.³²⁾

니젤에 의하면, 칼뱅은 신구약의 내용이 동일한 말씀과 성례를 내포한다.³³⁾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한 순간에 성육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도 그 이후의 시대와 같이 이 성육신의 사건 영향 하에 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행동에 있어서 우

29)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99쪽.

30) 프랑스아 방텔,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248쪽.

31) 위의 책, 249쪽.

32)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18집, 225-26쪽.

33)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03쪽.

리의 시간의 흐름에 제약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니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증거자의 말씀과 성례전을 제정함으로써, 경건한 구약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셨고 자기를 비추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구약성서는 민족의 종교적 갈망의 전거(典據)가 아니요, 그의 모든 말씀들이 유일한 말씀을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줄 때에는 그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분여한다.³⁴⁾ 니젤은 “구약이 말하는 왕과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한다.³⁵⁾ 니젤에 의하면, 예언자들이 보내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계명 자체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율법과 제도의 목표로 지향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⁶⁾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간적인 조상들의 두 반열, 즉, 왕으로서 그리고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언되셨다. 그리스도는 구약성경 전체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의미를 약속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³⁷⁾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³⁸⁾ 칼뱅은 족장들이 우리와 같은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같은 기업에 참여하며, 같은 구원을 바라보지만, 그 동참에서 그들과 우리는 경우가 어느 정도로 같은가를 논한다. 칼뱅에 의하면,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언약과 실체는 같다.”³⁹⁾

칼뱅은 신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밝힌다. 첫째로, 노력할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영생의 희망을 주셨고, 선택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선택을 보증하시며, 확인하셨다. 둘째로, 그들을 주 하나님께 묶어 놓은 계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유지되었다.

34) 위의 책, 103쪽.

35) 위의 책, 101쪽.

36) 위의 책, 101쪽.

37) 프랑수아 방텔,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248쪽.

38)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01쪽.

3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홍 외 3인 역, 『기독교 강요』 (1559)(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이후부터는 『기독교 강요』를 Inst.로 1권 I장 1항을 I i 1로 표기하기로 한다. II x 1.

셋째로,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⁴⁰⁾ 갈벱에 의하면, “신구약은 영생문제에서 일치한다.”⁴¹⁾ 구약의 조상들은 (1)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고, (2) 미래의 축복은 그에게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다. 즉,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약은 땅에 붙은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다는 것이다.⁴²⁾ 갈벱은 신구약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과 내용상의 일치점과 형식과 방법과 정도면에서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실질과 실상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지는 신구약이 하나이며,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르다.”⁴³⁾

갈벱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증언하며, 복음은 사람의 심정을 현세의 기쁨에 국한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는 경지로 들어 올린다고 말한다.⁴⁴⁾ “구약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을 토대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중보(仲保)에 의해서 확립되었다.”⁴⁵⁾ “복음의 약속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구약이 특히 내세에 관심이 있었다.”⁴⁶⁾ 결국 구약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⁷⁾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다.”⁴⁸⁾

갈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은총을 상속할 자라고 선언하며, 그 이유로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 백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 포함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을 통하

40) Inst., II x 2.

41) Inst., II x 22.

42) Inst., II x 22.

43) Inst., II x 2.

44) Inst., II x 3.

45) Inst., II x 4.

46) Inst., II x 3.

47) Inst., II x 5.

48) 최윤배, “개혁과 종교 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18집, 227쪽.

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보증하였다.⁴⁹⁾

B.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신약과 구약은 형식상, 정도면에서, 그리고 비교급상으로, 다시 말하자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하나님의 경륜방법상의 차이다. 니젤에 의하면, “복음이란 본래의 의미에 의하면 약속을 실현하신, 계시된 그리스도를 엄숙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신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구약은 성육신하실 분을 선포하는 까닭에 신구약을 분명하게 구별한다.”⁵⁰⁾ 신약은 채색된 그림이요, 구약은 암영(暗影)이라고 말한다.⁵¹⁾ 니젤은 “신구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을 증거한다. 양자(兩者)가 다 같이 한 편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한 편은 저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말한다.⁵²⁾ “하나님의 경륜과 시혜방법과 관련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⁵³⁾ 방텔에 의하면, 구약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표적과 성찬으로 영적인 떡을 떤었고, 동일한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⁵⁴⁾ 니젤에 의하면, 구약의 의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본질과 진리성이 우리에게 옹계 보유된다고 말한다. 구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깨워주는 것이다.⁵⁵⁾

칼뱅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논의한다.

49) Inst., II x 22.

50)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02쪽.

51) 위의 책, 102쪽.

52) 위의 책, 102쪽.

53) 최윤배, “개혁과 종교 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225-26쪽.

54) 프랑수아 방텔,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251쪽.

55)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03쪽.

신구약의 차이점은 “성경의 엄연한 통일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인정이다.”⁵⁶⁾

첫째 차이점은,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⁵⁷⁾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 유산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소망을 잘 배양해서 땅에 붙은 혜택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며, 맛보게 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이 내세의 은총을 더욱 더 분명하게 계시하시므로 구약시대와 같이 낮은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⁵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훌륭하고 유일한 보상이라고 말하며,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추방되며, 외국 땅으로 흩어지리라고 말한다. 구약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거의 이 땅에 있다.⁵⁹⁾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상적 혜택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친히 그들의 손을 잡아 천상적인 일에 대한 희망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리스도가 계시된 후에는 하늘 상속을 예표했다고 가르친다.⁶⁰⁾ 갈렐은 “지상적 약속은 구약 교회의 유년기에 해당했고 지상적인 것에 소망을 국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⁶¹⁾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가 거저 듣고만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더 위대한 약속으로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려 주를 향하게 하셨다. 갈렐은 땅에 대한 약속은 자기의 인애의 상징과 하늘 유업의 예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⁶²⁾ “신체적인 혜택과 신체적인 벌은 예표이다.”⁶³⁾ 주께서는 현세의 혜택으로 신자들에게 대한 자기의 인애를 증거하실 때, 이런 예표와 상징으로 영적 행복을 예비하신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신체적인 처벌로 장차 악인들에게 내

56) Inst., II xi 1.

57) Inst., II xi 1

58) Inst., II xi 1

59) Inst., II xi 1

60) Inst., II xi 1

61) Inst., II xi 2.

62) Inst., II xi 2.

63) Inst., II xi 3.

리실 심판을 증명하셨다.⁶⁴⁾

둘째 차이점은 “구약 시대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진상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이다.⁶⁵⁾ 칼뱅은 부처와 마찬가지로, “진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대에는 구약성경이 상징으로써 그것을 제시하였으니, 본질 대신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⁶⁶⁾을 특별히 히브리서를 예로 들었다. “구약은 실재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였을 뿐이고, 신약은 진상의 실체 그 자체를 현재 있는 것으로서 계시한다.”⁶⁷⁾ 즉,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으셨으므로, 제사장이 매일 교체되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된 것이 확실하다. 이 새로운 제사장 직분은 맹세로 제정된 것이므로 우월하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율법에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가 있었고, ‘일 자체의 산 형상’은 없었다.⁶⁸⁾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⁶⁹⁾

셋째 차이점은, “구약은 문자적이며 신약은 영적이다.”라는 것이다.⁷⁰⁾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며, 돌판에 새겼으며, 죽음이고,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사람의 마음에 새겼으며 생명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⁷¹⁾ “성령이 계시지 않을 경우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계시는 경우,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영적이다. 두 계약의 차이는 질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만 양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⁷²⁾ 구약이 문자적이라는 것은 영의 역사가 없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사람들의 심정에 영적으로

64) Inst., II xi 3.

65) Inst., II xi 4-6.

66)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상상의 근원과 발전』, 253쪽.

67) Inst., II xi 4.

68) Inst., II xi 4.

69) Inst., II xi 5.

70) Inst., II xi 7-8.

71) Inst., II xi 7.

72) 최윤배, “개혁과 종교 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229쪽.

새기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약은 현장에 없는 것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때가 오면 죽어 없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복음은 본체 그것을 나타내므로 영원히 굳게 서 있다.⁷³⁾

넷째 차이점은,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라는 것이다.⁷⁴⁾ 구약은 율법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노예의 언약이며 무력하다. 그러나 신약은 복음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며, 견고한 언약이다.⁷⁵⁾

다섯째 차이점은 “구약은 한 민족에,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다”⁷⁶⁾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강림 시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성별해 주셨으나, 다른 민족은 속화(俗化)되었으며, 외인이라는 것이다.⁷⁷⁾

이상에서 우리는 갈뱅이 이해한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갈뱅의 경우,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은혜계약으로서 내용과 본질상 동일하다. 구약과 신약에는 동일한 신앙,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을 증거하고 있다. 한편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과 형식과 정도면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덜 분명하고, 신약은 더욱더 분명하며, 구약은 미래형이고, 신약은 완료형으로서 비교법적 차이이다.

갈뱅이 그의 기독교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먼저 논의한 이유는 기독교론을 구속사라는 큰 틀에서 보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마니교도나 제세레파에서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뱅은 이 같은 사상에 반대하여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신약의 가치를 평

73) Inst., II xi 8.

74) Inst., II xi 9-10.

75) Inst., II xi 9.

76) Inst., II xi 11-12.

77) Inst., II xi 11.

가절하하려는 잘못에 반대하기 위해 갈뱅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신학에 적용해 보자. 목회현장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성막이론을 통해서 신약에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율법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학에서는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성경주석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갈뱅이 이해한 신구약의 관계성에서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이다.

III.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본질)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며, 참 하나님(vere Deus)이신 동시에 참 인간(vere homo)이시며, 두 본성(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한 인격(one Person in two natures)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⁷⁸⁾ 즉, 혼돈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inconfusedly, unchangeably, indivisibly, undividedly).⁷⁹⁾ “첫 사람이 타락하였으므로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존재할 수 없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부른다.”⁸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⁸¹⁾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동시에 구속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신 사실을 밝히고 있다.

A.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A.D.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는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는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⁸²⁾ 이러한 칼케돈 신조의 정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teleion),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psyches logikes)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또 그는 인성에 관한 한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본질이 똑같으시다. 그의 인성(anthropoteta)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이

78)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80쪽.

79)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4), 105쪽.

80) Inst., II xii 1.

81) Inst., II xii 1.

82)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104쪽.

시다.⁸³⁾

칼뱅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신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분명하다. 그는 성육신을 통해서 타락한 세계를 재건하며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약속되었다.⁸⁴⁾ 칼뱅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동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우리를 모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그가 죽음과 죄를 모두 정복하셔서 그 승리와 개선(凱旋)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는 우리에게서 받은 육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그 대속 행위로 우리의 죄를 말소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셨다.⁸⁵⁾ 여기에 속죄론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한 안셀름(Anselm)의 사상이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성과 참 신성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칼뱅은 참 인간성을 부정하는 마니교도, 마르시온주의, 재세례파,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판했다.⁸⁶⁾ 마니교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며 천상적인 육신 속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空氣)의 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시온파는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幻像)을 입으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칼뱅은 그리스도의 참인성을 주장했다.⁸⁷⁾ 멘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는 윈스터사건 이후에 네덜란드의 재세례파를 창건했다. 멘노는 ‘그리스도는 무(無)에서 육체를 취하셨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allegory)라고 하면서 생식에서 여자의 담당은 수동적일 뿐이며, 아버지가 아이의 진정한 근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씨’가 없다는, 자연의 원칙을 전복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했다.⁸⁸⁾ 또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다음과 같은

83)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2), 20쪽.

84) Inst., II xii 4.

85) Inst., II xii 3.

86)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창간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74쪽.

87) Inst., II xiii 2.

88) Inst., II xiii 3.

주장에 대해서도 칼뱅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씨에서 탄생하셨다면 그 결과는 여자의 씨에는 아무 불결한 것은 없고, 단지 남자의 씨에만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논쟁함으로써 로마가톨릭교회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⁸⁹⁾ 칼뱅은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고 있는 마르키온이나 마니교도들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을 빚내셔도 당연했을 것이지만, 일개의 미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⁰⁾ 그러나 칼뱅은 마태가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水路)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탄생된 놀라운 방법과 보통 사람이 출생되는 방법을 구별해 준다는 것이다. 마태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⁹¹⁾

칼뱅이 성경 주석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경 주석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아들’, 즉 ‘인자’로 불린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어 관용구에 인자라는 것은 ‘참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⁹²⁾

B.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니케아 신조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라고 고백한다.⁹³⁾ 칼케돈 신조는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89) Inst., xii 4.

90) Inst., II xiii 2.

91) Inst., II xiii 3.

92) Inst., II xii 2.

시며, 시간(aionon)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고 밝히고 있다.⁹⁴⁾

칼뱅은 ‘처녀에게서 난 중보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⁹⁵⁾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난 말씀이 인성을 취하여 위격(hypostasis)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기 전에 영원한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⁹⁶⁾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나시며,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으로 아버지에게 바치신 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므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것은 그가 창조되었다거나, 창조물 중에 하나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그 완전한 세계는 그 이외의 다른 기원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람이 되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였다. 사도는 한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하게 만든다. (1)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그가 천사를 지배하시게 되었으며, (2)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⁹⁷⁾

93)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12쪽.

94) 위의 책, 20쪽.

95) Inst., II xiv 5.

96) Inst., II xiv 5.

97) Inst., II xii 7.

C.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하나됨

칼케돈 신조에 의하면, 우리는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 성자, 주, 두 본성(physesin)을 타고 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본성이 혼동(asunkutos)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atrepotos),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adiaretos), 두 본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achoristos)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 본성의 특징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⁹⁸⁾ 오히려 각 본성의 고유성(idiotetos)이 보존되고, 두 본성이 한 품성(prosopon)과 한 자질(hypostasis)로 일치될 이룬다. 두 본성이 갈라지거나 분리 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심, 유일하게 독생하신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⁹⁹⁾

니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육신과 혼합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처녀의 몸을 그거하실 전(殿)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신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이것은 본질의 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격의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¹⁰⁰⁾

칼뱅은 위격의 단일성을 파괴하는 유티커스(Eutyches)와 네스토리우스(Nestorius)를 반박한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혼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모두 용인할 수 없다.¹⁰¹⁾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독립과 구별을 주장하면서도 두 본성의 속성(屬性)의 공통으로써 혼돈이나 분열이 없는 통일된 그의 위격(person)을 강조하려다가 신성의 우세를 고집한 씨릴(Cyril)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정죄되었다. 그런데

98)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20쪽.

99) 위의 책, 20쪽.

100)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0쪽.

101)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분리시킨 뜻으로 431년에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씨릴의 주동으로 정죄되었다. 씨릴의 가르침을 과장한 유티커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의 부정할 정도로 경시해서 448년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회의에서 정죄되었다. 451년의 칼케돈 회의에서 채택된 신경에서는 두 사람의 교리가 모두 부정되었다. Inst., II xiv 4.

신성 우세를 과격하게 부르짖는 유티케스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을 가지신 것이라는 단성론(單性論)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정죄되었다.¹⁰²⁾ 칼케돈 신조는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을 정죄했는데, ‘한 위격 안에서의 두 본성’(una persona in duae naturae)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실재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confusion),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change), 두개의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separation) 하지 않으며, 두 본성의 영역 혹은 기능에 있어서 제가꿈(division) 활동하지 않는다.”¹⁰³⁾ 그런데 칼케돈 신조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이시요, 진실로 인간이시다.’(vere Deus, vere homo) 그리고 그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다. ‘혼동 없이’, ‘변화없이’, ‘갈라짐 없이’, ‘동떨어짐이 없이’ 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¹⁰⁴⁾

깎배은 두 본성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연합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것을 취해서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본질상 그에게 속한 것을 은총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누가 중보의 그 임무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도 되시려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말한다.¹⁰⁵⁾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할 때, 이것은 마치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든가 육신과 혼합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의 거처를 위한 성전으로서 처녀의 태를 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동시에 인자(人子)가 되셨다. 실체의 혼합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신성과 인성의 그와 같은 연결과 통합에 있어서 각 본성은 그 특성을 완전히 보유하면서 동시에 둘이 합하여 한 그리스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 영혼은 육체가 아니며, 육체는 영혼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두 부분이 합하여 구성된 사람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합하여 한 인격을 구성하는 별다른 두 본질이 있

102)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12쪽.

103) 위의 책, 20쪽.

104) 이형기,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4쪽.

105) Inst., II xii 2.

다.¹⁰⁶⁾

칼뱅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통합으로 이해한다.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와 같은 연결과 통합에 있어서 각 본성의 특성을 완전히 보유하고, 동시에 둘이 합하여 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교회의 에큐메니칼 신조 속에 있는 교회전통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칼뱅은 새로운 창조적인 두 본성론을 전개하지 않고, 그의 당시에 오해된 두 본성론을 비판하면서, 고대교회의 두 본성론을 재발견하여 새롭게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

106) Inst., II xiv 1.

VI.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불린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대신한다.¹⁰⁷⁾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 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 계신다. 이 말은 메워져야 할 간격과 구속되어야 할 죄와 폐기되어야 할 원수됨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¹⁰⁸⁾ 구약성서에 따르면, 중보자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중보 기도와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삼고 우리를 대신하신다(출 32:30-32; 사 53). 특별히 신약성서가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그의 이름이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제사장,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¹⁰⁹⁾ 우리는 이 장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상태, 즉 겸비상태(the state of humiliation)와 고양상태(the state of exaltation; status exaltationis),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A.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상태(status duplex) 속에서 사역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중상태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이 이론은 루터교(post-reformation lutheranism) 안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겸허설주의자(첼니츠, 멘처)는 그리스도가 그의 굴욕(humiliation)가운데 있을 때 잠시 스스로에게 몇몇 신적 속성을 벗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은폐설주의자들은, 이러한 속성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감추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겸허설(kenoticism)은 일반적으로 성육신을 신성에 의한 인성의 취득(assumption)보다는 신성의 포기(abdication)로 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107)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의안, 2004), 90쪽.

108) 위의 책, 90쪽.

109) 위의 책, 90-91쪽.

왔다. 많은 겸허설주의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지, 환원주의적인 의미에서 이해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¹¹⁰⁾ 루터파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겸비상태와 그리스도의 고양상태를 구별한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루터의 기독교론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하나됨 속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어진 속성교류가 있다. 편재성과 전능성과 같은 신적 속성들은 속성교류를 통해서 인간성에도 속하게 된다.¹¹¹⁾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육체의 편재성(ubiquitas)을 계시하지 않으셨을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속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것들을 삼가라고 가르치셨다. 그 때 그리스도는 겸비 또는 비움의 상태 속에 계셨다. 그러므로 말씀의 성육신 자체는 비움(kenosis)이 아니라, 신적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음이다. 이 같은 루터적 이론 속에 깔뎃을 비롯하여 개혁신학이 비판하듯이 인성이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19세기에는 신성의 인간화를 지향하는 신학이론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겸비기독교론(kenotic Christology)인데, 처음에는 독일에서 나중에는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신적 속성들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내려놓으시거나 그것들만을 단지 잠정적으로 보존하셨다. 이 같은 기독교론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동기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신을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거리를 두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기를 원하는 신적 사랑의 동기이다. 두 번째 동기는 예수의 지상적 삶을 순전한 인간적 사람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같은 겸비기독교론은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론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의 하나님의 아들과 전적으로 다르게 된다.¹¹²⁾ 만일 많은 겸허설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신적 속성이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때 그에 의해서 포기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110) 도날드 G. 블러쉬, 이형기·이수영 역,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vol. I(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71-72쪽.

111) 최윤배, “복음주의신학”, 94쪽.

112) 위의 책, 94쪽.

여전히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굴욕당한 분(the humiliated One)이 고양(승귀)되신 분(the exalted One)과 동일하지 않다면, 그때는 예수는 지상에 생존했던 반신(demigod)에 불과하게 된다. 게스는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신적 속성을 포기하였으며, 또한 로고스가 인간 영혼(human soul)이 되었다고 주장까지 한다.”¹¹³⁾ 그리스도가 인지되지 못한 하나님이었고, 오직 신앙에 있어 하나님이었지만, 그의 연약함과 굴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그 오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계심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을 부를 수 있었으나, 결국 십자가에 이르는 무저항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분명한 제한을 가하셨는데, 비단 그가 인간이 되었던 때만이 아니라 지상의 순례기간 동안에도 그러했다. 그는 천상적인 영광이 너무나 미약하게 반사되며, 그의 위엄은 더 이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앙의 눈을 제외하고는 항상 감추어졌다.¹¹⁴⁾

그리스도의 겸비상태와 고양상태는 ‘스타투스’(status)라는 뜻은 ‘상태’뿐만 아니라, ‘법적 위치’를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중보자께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두 상태 속에서 어떻게 서 계시느냐이다.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신분이 되며, 통상적으로 뒤이어 투옥상태와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박탈과 불명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¹¹⁵⁾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신 중보자는 그의 겸비와 고양 속에서 그의 직분적인 일을 행하신다. 겸비상태에서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의를 성취하셨고, 고양상태에서 그는 그가 성취하신 의를 그의 백성에게 적용시키신다.¹¹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13) 도널드 G. 블러쉬, 이형기 · 이수영 역,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vol. I, 172쪽.

114) 위의 책, 173-74쪽.

115)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 · 이상원 옮김, 『벌코프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565쪽.

116) 최윤배, “복음주의신학”, 94쪽.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도날드 G. 불러쉬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신다. 하나님 안에는 가득한 만족이 있고 모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¹¹⁷⁾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참으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지고선(至高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굶주림을 완전히 채우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세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아들 안에서도 자신을 더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¹¹⁸⁾ 즉,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한 만족이 있으며 모자람이 없는 상태인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이중상태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진해서 자기를 비우심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자기 자신부터 벗어나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을 빛내셔도 당연했을 것이지만 일개의 미천하고 멸시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가르치려 한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복종을 충고하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밝힌다. 그는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이런 비천한 처지에 만족해서 자기의 신성이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는 것을 허락하셨다.¹¹⁹⁾

요약하면, 칼뱅은 그리스도의 겸비상태에 대하여 자신을 비우셨다(exinanitio)고 말한다. 그는 그가 인간이 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포기하셨다. 그는 인간들과 똑같이 되시기를 기꺼이 원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스도의 낮춤 속에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순종이 보이신 것이다. 이 같은 겸비 후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하늘 높이 올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

117) 도날드 G. 불러쉬, 이형가·이수영 역, 『복음주의신학의 정수』 vol. I, 65-66쪽.

118) 위의 책, 65-66쪽.

119) Inst., II xiii 2.

도의 검비 후에 고양(高陽)이 뒤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¹²⁰⁾

칼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는데, 그 중에 사도신경의 첫째조항은 성부 하나님, 둘째 조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둘째 조항에서 그리스도의 전(全) 삶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심판, 재림 등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는 “모든 증언을 열거하려면 한정이 없을 것이므로 나는 그 전부를 인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중의 여러 구절을 적당한 곳에서 언급하겠다. 그러나 그가 일생 동안 보이신 복종의 다른 부분도 제외되지 않는다¹²¹⁾”고 말한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사도신경’을 몇 가지 관점 즉,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즉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넘어 간다. 그러나 『칼뱅의 요리문답(1541 / 1542)』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탄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심, 부활, 승천 심판, 재림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본장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칼뱅의 해설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검비상태로서 성육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지낸바 되심, 음부에 내려가심을 다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고양) 상태로서 부활, 승천, 심판, 재림 등을 다룰 것이다.

1. 검비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빌 2장2-8절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120) 히브리서 12:2

121) Inst., II xvi 5.

겸비를 두 요소로 구분한다. 즉, 케노시스(kenosis, exinanitio, 비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신 사실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타페이노시스(tapeinosis; humiliatio, 비하)는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굴복하시고 수치스럽게 죽기까지 일생을 행동과 고난으로 순종하신 것을 의미한다.¹²²⁾ 다시 말하면, 그는 신적인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죄인으로 낮아지심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그는 참인간으로 고난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약점을 담당하셨다. 루터파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음부에 내려가심’을 승귀상태의 첫 단계로 보지만,¹²³⁾ 칼뱅은 ‘그리스도의 음부에 내려가심’을 겸비상태의 마지막 단계로 본다.¹²⁴⁾ 따라서 우리는 칼뱅의 경우, 그리스도의 겸비상태를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심, 음부에 내려가심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a. 성육신

칼뱅은 성령을 통한 잉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따른 출생, 곧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水路)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탄생한 놀라운 방법과 보통사람이 출생한 방법을 구별해 주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의 삶과 죽음은 구속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규정들을 받아들이셨다.”¹²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령의 기적으로 잉태되심이며, 거룩케 하시는 능력, 중보자의 참인간성과 무흠을 보여준다.

12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옮김, 『별코프 조직신학(하)』, 565쪽.

123) 위의 책, 576쪽.

124) 위의 책, 565쪽.

125)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171쪽.

1) 성령을 통한 기적

벌코프에 의하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선재하는 성자가 인성을 취하시고 몸소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 기적이다.”¹²⁶⁾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성이 인간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음을 확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였다.”라고 말한다.¹²⁷⁾ 김균진도 성육신의 주체가 성령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령에 의한 수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리킨다. ... 이 가능성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지 않은 인간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靈)이다. 이 가능성은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근원(根源)은 한 여인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다.¹²⁸⁾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통한 잉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른 출생이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qui conceptus est de spiritu natus ex Maria virgine.)¹²⁹⁾ 라고 기록한다. 즉, 성령을 통한 잉태는 성령으로부터 출원된 성자의 출생을 말하지 않고, 중보자이신 성자의 출생에 성령의 어떤 기능이 도구적으로 쓰였다는 것이다.¹³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시사하고 있다¹³¹⁾

우리는 그러면 깔뱅의 경우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깔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적으로 잉태되었

12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옮김, 『벌코프 조직신학(하)』, 567쪽.

127) 위의 책, 569쪽.

128)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171쪽.

129) 라틴어 본문의 출처: 이형기, 『세계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신앙고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9쪽.

130) 정홍렬, 『사도신경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22쪽.

131) 눅1:35-36.

다.¹³²⁾ 예수의 탄생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부모의 슬하에서 남자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¹³³⁾ 갈뱅은 누가복음을 해석하면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일반적인 섭리와 기적, 양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다.¹³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동정녀의 수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협력 없이 여자 홀로 잉태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한 원인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갈뱅은 『갈뱅의 요리문답』(1541/1542)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은 자연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적인 활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¹³⁵⁾

49. 목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두 구절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실체(substance)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협력이 없이 오로지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 되어진 것입니다.

갈뱅은 『공관복음주석』을 해설하면서, 성령을 통한 잉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따른 출생 곧 “신적 기원을 가지신 인성에 관한 진리”라고 말한다.¹³⁶⁾ 처녀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水路)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탄생한 놀라운 방법과 보통사람이 출생한 방법을 구별해 주고 있다. 즉. 참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132)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 1541/1542』(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114쪽.

133) 존 칼빈출판위원회(편), 『공관복음주석』(서울: 성서원), 120-22쪽.

134) 위의 책, 79-80쪽.

135)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14쪽.

136)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80쪽.

성육신하심으로 성령의 담지자가 되셨다.¹³⁷⁾

2) 성령께서 기록케 하심

벌코프에 의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수태즉시 성화시켰고, 이로써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¹³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화시키는 감화력이 예수님의 잉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생애를 걸쳐 지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시고, 지상생활에 임하여 모든 과정과 활동 속에 동참하셨고, 성령을 보내는 자가 되셨다.¹³⁹⁾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으며, 죄인들을 위해서 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¹⁴⁰⁾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구절에서 “성령의 작용하시는 기능이 동시에 기록하게 하시는 기능으로 이해될 때” 올바르게 이해된 것이다.¹⁴¹⁾ 즉 성령은 마리아의 태로 잉태케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은 기록하게 하시는 준비작업을 하셨다.¹⁴²⁾

로마 가톨릭교회는 철학적 사고에 의존하여 남성의 씨만이 종족번식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남성이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흠하다고 주장했다.¹⁴³⁾ 깔뱅은 그리스도의 참인간성과 무흠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다. 즉 마니교도, 마르키온, 재세레파, 세르베투스, 로마 가톨릭과의 논쟁을 하였다.¹⁴⁴⁾ 마니교도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며 하늘에 속한다.”고 한 말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空氣)의 몸이라고 주장했다. 마니교도는 “마치

137)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73쪽.

138)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옮김, 『벌코프 조직신학(하)』, 569쪽.

139) 현요한, 『성령의 다양한 얼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434쪽.

140) Inst., II xiii 4.

141)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창간호, 75쪽.

142) 위의 책, 75쪽.

143) 위의 책, 75쪽.

144) Inst, II xiii 2-3.

무한한 신성의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거나 한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칼뱅은 만약 하나님의 본질에서 인간의 영혼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변화와 고뇌 뿐만 아니라 무지, 악한 욕망, 허약 그리고 각종 악에도 종속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신성의 은밀한 유입이라면, 우리의 모든 불결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본성으로 보아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말한다.¹⁴⁵⁾

멘노 시몬스는 그리스도는 무(無)에서 육체를 취하셨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씨’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자의 씨가 생식에서는 수동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며 생식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진정한 근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씨’가 없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했다. 칼뱅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도 여자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났다고 한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하므로 그는 마리아의 씨에서 생산되신 것이라고 한다. 마태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水路)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났다고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생산 방법과 보통 방법을 구별한다.¹⁴⁶⁾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나 세르베투스 는 예수의 두 본성을 다음의 글을 통하여 혼합해 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과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원소로 혼성(混成)된 허구(虛構)라고 생각했다. 우선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처녀의 태중에서 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그의 궤변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한다. 즉 두 본성의 구별을 없애 버리고서는 그리스도는 약간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의 혼합체이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그의 논리 전체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그림자 같은 형상들만이 있었다는 생각을 토대로 삼았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영예를 받도록 예정되었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에 처음으로 그 그림자 같은 형상들의 진상 또는 효력이 나타났다고 한다.¹⁴⁷⁾

145) Inst., I xv 5.

146) Inst., II xiii 3.

147) Inst., II xiv 5.

갈뻥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전(全) 과정에서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갈뻥은 『갈뻥의 요리문답』(1541/1542)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¹⁴⁸⁾

52. 목사: 그런데 이것이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가?
아이: 인간의 본성(semence humaine)은 그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이 잉태에 개입하시어 우리 주님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분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뻥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협력으로 잉태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오염과 허물과 부패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모친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그를 낳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원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순전하고도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출생하셨기 때문이다.¹⁴⁹⁾ 갈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적인 수단으로서 부부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야 하며,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될 것이다.¹⁵⁰⁾ 즉,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과 영광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며, 인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¹⁵¹⁾ 그리스도를 가리켜 ‘거룩한 후손’ 곧 성령으로 잉태 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해보면, 그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없애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꼭 참된 인간이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불결과 흠이 없어야 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타

148)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뻥의 요리문답, 1541/1542』, 115쪽.

149)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창간호, 75쪽.

150)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서울: 성서원), 79-80쪽.

151) 위의 책, 79-80쪽.

락한 본성의 오염은 전혀 취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순결하게 지켜 그리스도가 거룩할 뿐 아니라 타인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잉태방법 자체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구별되게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²⁾

갈뱅에 의하면, 인간이 죄의 오염이 있기 전에 있었을 그런 순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뱅의 요리문답』(1541/1542)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구절을 해설하면서 성령의 기적적인 활동으로 잉태하심으로 참인간으로서 중보자뿐 아니라 그의 무염시태를 통하여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³⁾

요약하자면, 갈뱅에 의하면, 성령을 통한 잉태는 동정녀 잉태의 원인이다. 성령께서는 자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신비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남자의 협력이 없이 잉태케 하셨다. 본성은 우리와 같으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죄는 없으시다. 그는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다. 『갈뱅의 요리문답』(1541/1542)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는 성령께서는 잉태에 개입하시어 우리 주님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 분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실 필요에 의해서 중보자로서 참 인간성과 무염수태로 참 하나님으로서 구속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3)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정통기독교회의 전통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길로 믿어 왔다. 만약 인간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면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을 것이다. 만일 예수가 단지 남녀의 성관계에 의한 정상적인 출생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질을

152)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80쪽.

153) 최윤배,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창간호, 75쪽.

물려받았을 것이고 무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신인이라고 불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이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무오성과 신인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¹⁵⁴⁾

예수 그리스도는 참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아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었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성령의 담지자’요, ‘성령의 수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삼위일체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역사한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이다.¹⁵⁵⁾

갈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고 말하며,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취함으로써 형제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한다.¹⁵⁶⁾

그는 천사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히2:16),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이와 같이 “혈육에 ...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 없이 하시며”(히2:14), 또 우리는 그와 인연이 있는 덕택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신다(2:11). 또 그는 ...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 자비하고 충성된 중보가 되려 하심이라(히2:17).¹⁵⁷⁾

갈뱃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¹⁵⁸⁾ 이것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시고도 약하고, 일시적인 인간적 상태로 오셨다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셨으므로 중보가 되려 하심이다.

갈뱃에 의하면,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연인(自然人)이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으니 천상적이다.”¹⁵⁹⁾ 그리스도는 아무

154)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178쪽.

155) 현요한, 『성령의 다양한 얼굴』, 435쪽.

156) Inst., II xiii 4.

157) Inst., II xiii 1.

158) Inst., II xiii 4.

오점도 없고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남자의 씨만 불결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오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나셨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⁶⁰⁾ 이와 같이 갈뱅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해석을 무염수태로 해석한다.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새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¹⁶¹⁾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원한 생산에 의해서 항상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다.¹⁶²⁾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이한 은총의 빛나는 거울이시며,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예를 얻으셨고. 그러므로 그는 육신에서, 태중에서도, 이와 같이 훌륭히 장식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¹⁶³⁾

요약하면, 갈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참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아무 오점도 없고, 부패도 없으시며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 그리스도는 참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참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갈뱅은 『갈뱅의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구절을 해설하면서, 구원론적, 성령의 기적, 중보자의 참인간성과 그의 무흠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육신에서나 태중에서나 인성을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참하나님이시다.

b.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통전적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향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

159) Inst., II xiii 4.

160) Inst., II xiii 4.

161) Inst., II xiv 5.

162) Inst., II xiv 5.

163) Inst., II xiv 7.

석한다. 십자가 사건의 주체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며, 이 사건의 효력 또한 하나님-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의 효력은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십자가 이전의 그분의 지상에서의 섬김과 희생의 삶과의 연속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의 부활의 빛 안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 예수의 사건이다.¹⁶⁴⁾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인간들의 불의함, 종교적, 정치적 음모와 폭력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당한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우리는 본 장에서 갈뱃의 사도신경해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다루기로 한다.

1)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등장해서 예수의 역사성과 인성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횡행했는데, 예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전거가 된다.¹⁶⁵⁾ 우리말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로 번역했지만 원래의 의미대로 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이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소개한다고 볼 수 있다.¹⁶⁶⁾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내용이 교회의 일반 신조 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시대가 규정될 수 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 속에서 날짜로 규정될 수 있다.¹⁶⁷⁾

갈뱃에 의하면, 예수의 고난을 진술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빌라도의 이름만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이름이 등장하

164)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2003, 304-05쪽.

165) 정홍렬, 『사도신경 연구』, 142쪽.

166) 위의 책, 133쪽.

167)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강의안”, 105쪽.

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의 두 사람의 이름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자를 탄생시킨 여인이었다. 빌라도는 진리를 거슬러서 불의의 잣대로 예수의 처형에 동조한 비겁하고 불의한 범죄자의 모습이다. “총독이라는 칭호를 말하는 것은 이야기의 진실성을 주장”하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¹⁶⁸⁾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으신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하여 뭐라고 진술하는가? 갈뱅은 『기독교 강요』 (1536)을 통하여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죽을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죽음에 그의 몸을 넘겨주시고, 그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쏟으셨다.(마26:28) 더구나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시고, 죄수요 행악자 처럼 심판관의 인도를 받아 정죄되었는데, 이는 그가 정죄 받으므로 우리가 가장 높으신 심판자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¹⁶⁹⁾

갈뱅의 경우,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은 우리들을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서 정죄 받으신 것으로 설명한다. 『기독교 강요』 (1559)에서는 빌라도의 칭호를 사용하여 역사적 진실성을 규명하고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성경은 우선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으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이 이 의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출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인간에게-더군다나 악한 불신자에게 정죄를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¹⁷⁰⁾

16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John T. McNeill 2 vols, Philadelphia Press를 약어로 *Inst., I I 1*로 표기하기로 한다. “For the title ‘perfect’ is mentioned, not only to affirm the faithfulness of the history, but that we may learn what Isaiah teach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Is. 53:5). Calvin, *Inst., II xvi 5*.

169) John Calvin, 양낙홍 역, 포드 베틀즈 서론, 『기독교 강요(1536)』, 134쪽.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태를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대가를 치루기 시작하셨다고 말한다. 그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칼뱅은 로마서 3장24-2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하심이라고 말한다.¹⁷¹⁾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인과 악인을 대표하신 것을 보지만, 동시에 그의 결백을 볼 때에,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뱅은 『칼뱅의 요리문답』에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유대 땅의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범법자요 또 악한으로 정죄되심은 우리가 그분의 정죄 받음을 통하여(장차) 대심판관의 법정에서(au consistoire du grand Juge) 무죄 방면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¹⁷²⁾

58. 목사: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고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다(마 27:24, 눅23:14).

아이: 둘 다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재판관(빌라도)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보증이심을 즉, 우리의 무죄 방면을 위해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¹⁷³⁾

요약하면,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도 고난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170) Inst., II xvi 5.

171) Inst., II xvi 5.

172)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41/1542』, 62쪽.

173) 위의 책, 116쪽.

죄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심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무죄방면을 위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

2) 십자가에 달리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도구로 삼아 성자를 탄생시켰다면, 고난을 위해서는 유대 땅의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판결을 받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틀을 사용하신다.

누가복음 23장1-2절에는 예수를 고소한 죄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¹⁷⁴⁾

첫째,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황제 곧 로마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예수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신17:12에 근거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로마법에 의해 정치적 반란자로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¹⁷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택하도록 하셨는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갈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사건이다.

1) 대속적 죽음

갈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기 위해서였다.”¹⁷⁶⁾ 즉, 우리들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갈뻥의 요리문답』에는 그리스도가 죽을 인간

174)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276쪽.

175) 위의 책, 276쪽.

176) Inst., II xvi 6.

의 몸으로 태어나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간의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도말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거룩한 피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로 뿌리신 것은 우리를 향해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며 우리의 불의가 정화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십자가 -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저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위에서 죄로 말미암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감당하시기 위함이었다.¹⁷⁷⁾

칼뱅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갈3:10). 그는 죽으셨다. 이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삼키도록 된 그 죽음을 삼키기 위함이다.”¹⁷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므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이다.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중보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한다. 칼뱅은 『칼뱅의 요리문답』 (1541/1542)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augmentation de Dieu)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희생제물(un sacrifice) 이시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척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오점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은 말소되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어짐이 없이 되었고, 우리에게 대한 채무증서는 폐기되었다는

177)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37』, 62쪽.

178) John Calvin, 양낙홍 역, 포드 베틀즈 서론, 『기독교 강요, 1536』, 134쪽.

사실입니다.¹⁷⁹⁾

갈뱃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죄악을 말소시켜서, 우리에게 대한 죄의 빚을 폐기시키셨다는 것이다. 갈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얻는 다른 유익에 대하여 “우리의 낡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며, 우리의 육은 제어를 당하게 됨으로 악한 탐욕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된다”¹⁸⁰⁾고 말한다.

갈뱃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해와 은총을 얻게 되었다. 갈뱃은 갈라디아서 3장10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속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과는 멀리 떠나 있었다고 말한다.¹⁸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가련한 처지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과 영원한 죽음과 죄의 명에를 멘 포로, 사탄의 종,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을 길이 없는 신분, 무서운 파멸이 기다리는 존재 일 뿐이다.¹⁸²⁾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죄인에게 내리려는 그 벌을 자기가 맡아 받으셨으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 만든 죄악들을 자기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으며, “이 속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바른 배상과 희생을 드리셨으며,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셨다.”¹⁸³⁾

갈뱃은 바울의 글을 인용하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이 되셨다고 선언한다(롬4:25).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179)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뱃의 요리문답, 1541/1542』, 122쪽.

180) 위의 책, 122쪽.

181) Inst., II xvi 2.

182) Inst., II xvi 2.

183) Inst., II xvi 2.

깎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으며, “그는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아삽’으로서(사53:10), 곧 예언자들이 부른바와 같이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내주셨다.”고 말한다.¹⁸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아무 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와 수치와 비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내 놓으셨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배상을 치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⁵⁾ 깎배은 만일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죄는 그가 당한 유죄 선고에서, 저주의 소멸은 그의 십자가에서, 만족은 그의 희생에서, 청결은 그의 피에서 ... 우리의 소원이 만족될 때까지 그의 보고에서 찾아내되 다른 곳에서 찾지 말자.”¹⁸⁶⁾

2)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가 그 당시 고위층과 백성들로부터 받은 모든 적대감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그의 사랑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셨으니,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성부의 사랑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응답하시면서 죄인을 대신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부의 한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¹⁸⁷⁾ 깎배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불의에 대한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¹⁸⁸⁾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성자(聖子)의 피를 통해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184) *Inst.*, II xvi 6. “Therefore, to perform apert expiation, he gave his own life as an Asham, that is an expiatory offering for sin, as the prophet calls it(Isa.53:10), Upon which our stain and punishment might somehow be cast, and cease to be imputed to us.”

185) *Inst.*, II xvi 6.

186) *Inst.*, II xvi 19.

187) 이형기, 『세계교회가 고백해야 할 하나의 신앙고백』, 91쪽.

188) *Inst.*, II xvi 4.

아니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시기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는 듯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수였지만,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와 화해했다.¹⁸⁹⁾

다시 말하면, 갈뱃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을 행할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속죄로 말미암아 올바른 배상과 희생을 드리므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셨다. 갈뱃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한다.¹⁹⁰⁾

갈뱃에 의하면,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살도록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한다.¹⁹¹⁾ 즉,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는 뜻이다. 갈뱃은 말하기를, 적대관계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며,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시된 속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일소하신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전에 불결하고 불손하던 우리가 그가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시려는 뜻이다. 참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일 4:19), 후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킨다.”¹⁹²⁾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결합하실 때에 한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또 굳게 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를 힘입어야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면할 수 있다.¹⁹³⁾

189) Inst., II xvi. 4.

190) Inst., II xvi. 4.

191) Inst., II xvi 3.

192) Inst., II xvi 3.

요약하면, 갈뻥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저주와 정죄를 받았으며, 죽음으로 처벌받았고, 우리를 자기와 결합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하심이다.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므로 심판을 행하셨고,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보장되었다.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으며, 우리가 그를 힘입지 않고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저주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이며 사랑이다.

c. 장사되심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등이 역사적 사실이었던듯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역사적, 지질학적 장소이다.”¹⁹⁴⁾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사람과 같이 죽어서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매장되게 되었다.¹⁹⁵⁾

예수의 죽음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사되서’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¹⁹⁶⁾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그의 겸비 사역에 속하며,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에게 속하셨다.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으며, 무덤은 그를 삼켜 버렸으며, 그는 장사지낸바 되었다.¹⁹⁷⁾

193) Inst., II xvi 3.

194)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106쪽.

195) 이종성, 『주기도 · 십계명 · 사도신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1쪽.

196) 정홍렬, 『사도행전 연구』, 160쪽.

197)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106쪽.

루이스 벨코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비하의 한 형태”이며, 시체의 매장은 죄인의 비하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풍습이며, 또한 그의 장사되심은 실제로 죽으셨음을 입증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다.¹⁹⁸⁾

그리스도는 육체적 현존을 거두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주셨다. 그 다른 보혜사는 독립적으로 자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알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¹⁹⁹⁾

갈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의 사건은 예수 자신에게는, 즉 기독교론적 관점에서는 구속사적 사건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옛 사람이 장사되는 구원론적이면서도 교회론적인 적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옛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 바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하며, 우리를 삼켜 먹어 치우려고 하는 죽음을 삼켜 버리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을 통해 그분과 연합하여 죄와 더불어 장사되고 악마와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다.²⁰⁰⁾

갈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묻히고, 마귀와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⁰¹⁾ 즉, 그리스도께서 묻히심은 그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가 묻히고, 마귀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²⁰²⁾ 갈뱃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한다. 갈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198)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벨코프 조직신학(하)』, 575쪽.

199) 현요한, 『성령의 다양한 얼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433쪽.

200)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뱃의 요리문답, 1537』, 62쪽.

201)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4쪽.

202)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뱃의 요리문답, 1537』, 62쪽.

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²⁰³⁾,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죽음의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는 우리가 받아 즐길 이중의 축복을 제시한다. 즉 우리가 결박되어 있던 그 죽음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을 누린다.²⁰⁴⁾

d. 음부에 내려가심

벌코프는 말하기를, 로마 가톨릭교회는 음부에 내려가심을 그리스도께서 사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그의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장소인 림보로 내려가서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리스도가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 내사 완성시키시며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시기 위해 (下界)로 내려가셨다고 말한다. 벌코프는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사’를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실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겟세마네의 고뇌도 가리킨다.²⁰⁵⁾ 벌코프에 의하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옥행을 가르치고 있지 않음은 확실하다. ... 그는 육체로 지옥에 내려가셨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몸은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²⁰⁶⁾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빠졌는데, 대부분의 세계교회가 고백하고 사도신경은 이 구절을 담고 있다.²⁰⁷⁾ ‘음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 ‘깊은 곳’, ‘더 낮은 곳’ 등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 지구보다 더 낮은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²⁰⁸⁾ 예수가 죽으신 후에 육체는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 속

203) Inst., II xvi 7.

204)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뎡의 요리문답, 1537』, 62쪽.

205)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벌코프 조직신학(하)』, 576쪽.

206) 위의 책, 577쪽.

207) 이종성, 『주기도문 · 십계명 · 사도신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0쪽.

208) 위의 책, 173쪽.

에 있었으나 그의 영은 지구보다 더 낮은 곳, 즉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은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이러한 사실이 신약에 계승되어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해서 지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한다.²⁰⁹⁾ 이 음부는 지상으로 올 수도 있는 곳인데, 저주의 장소로도 이해되었고, 무서운 죄가 성행하며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거기서도 행패를 부리는 무서운 곳이라고도 한다.²¹⁰⁾

칼뱅은 ‘음부에 내려가심’을 ‘지옥 강하’, 즉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해석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²¹¹⁾ 이 문제를 중심으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1536)을 살펴보면, “지옥강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²¹²⁾

그가 지옥에 내려 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시21:9)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사53:4, 11), 그리하여 우리의 빛을 지불하고 형벌을 제거하시되 그 자신의 죄(결코 있을 수도 없는) 때문인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같이 하시는 것이다. ... ‘그가 지옥에 가셨다’는 말은 명백하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림보’라는 말이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포로로부터 놓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가서 그 문들을 힘차게 깨뜨리고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위대한 저자들에 의해 반복되어져 왔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진지하게 옹호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²¹³⁾

칼뱅은 ‘음부에 내려 가심’을 해설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209) 위의 책, 173쪽.

210) 이종성, 『주기도문 · 십계명 · 사도신경』, 174쪽.

211) *Inst., II xvi 10* “The descent into hell’ as an expression of the spiritual torment that Christ underwent for us.”

212) *Inst., II xvi 10*.

213)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5-36쪽.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하심이라고 말한다.²¹⁴⁾

칼뱅은 베드로전서 3장19절을 해석하며,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²¹⁵⁾ 베드로가 여기서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속의 능력은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에게도 비쳐지고 또 분명히 나타났다는 사실일 따름이다. 그로부터 올 구원을 항상 기다리며 살았던 신자들이 그 때에 분명히 얼굴을 맞대고서 그의 방문을 맞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버려진 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란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됨으로써, 버려진 자들은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더욱 더 자기들에게 아무 희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²¹⁶⁾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를 위해(pour nous)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가공할 만큼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고 경험하셨다.²¹⁷⁾

그리스도께서(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아 괴로워 지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의 모든 징후들을 (당신 안에서) 경험하시게 되었고 마침내는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²¹⁸⁾

칼뱅의 『기독교 강요』 (1559)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²¹⁹⁾ 칼뱅은 음부에 내려가심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신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포함되었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

214) 위의 책, 135-36쪽.

215) 위의 책, 135쪽.

216) 위의 책, 135쪽.

217)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37』, 62쪽.

218) 위의 책, 63쪽.

219) *Inst., II xvi 8*. “But we ought not to omit his descent into hell, a matter of no small moment in bringing about redemption.”

이다. 갈뻥은 ‘음부에 내려가심’을 제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많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0)

갈뻥은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 즉, 정죄와 버림을 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아버지의 노역을 풀실 수 있었다.²²¹⁾ 그리스도는 노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징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중보가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갈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며 압박하는 공포심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고통과 지옥의 공포를 모두 정복하고 개선했다.²²²⁾

2. 승귀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벌코프에 의하면, 루터파신학과 개혁파신학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전자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심’을 그리스도의 승귀상태의 첫 단계로 간주하지만, 후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고양상태의 첫 단계이다.²²³⁾ 갈뻥은 그리스도의 승귀상태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다루고 있다.

a.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약성서의 여러 증언들 중에서 대표적인

220) Inst., II xvi 8.

221) Inst., II xvi 11.

222) Inst., II xvi 11.

22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벌코프 조직신학(하)』, 576 쪽.

요점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언이고, ‘제 삼 일에 일어난’ 부활에 대한 증언이다. 부활은 분명히 지상의 예수의 실재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실재로서 성령의 현존 안에서 경험되어진 역사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현전승에 따르면,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은 사도들에게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형태로서 경험되었다.²²⁴⁾

갈벡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론적 모티브가 있다.²²⁵⁾ 갈벡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언급되더라도 그의 부활에 속한 것을 동시에 언급해야 하며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고 말한다.²²⁶⁾ 즉,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하셨다.”²²⁷⁾ 갈벡은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고 말한다.²²⁸⁾ 그래서 그의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²²⁹⁾ 즉,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죽음에서 일으켜 의롭게 된 상태에서 생명과 의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그의 부활로 우리들은 확실한 부활을 얻을 것이다.²³⁰⁾ 갈벡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고 권능으로 하늘에 올라가시어 죽음의 모든 병기들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²³¹⁾

갈벡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흘러나오는 칭의, 영화, 새 생명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la iustice*)를 충만히 얻도록 해 주셨

224)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333-34쪽.

225)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벡의 요리문답, 1541/1542』, 122-23쪽.

226) Inst., II xvi 13.

227)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벡의 요리문답, 1541/1542』, 123쪽.

228) Inst., II xvi 13.

229) 위의 책.

230)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6쪽.

231)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벡의 요리문답, 1537』, 123쪽.

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 영광스러운 불멸 가운데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 준다. 그의 부활은 진정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그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²³²⁾ 갈뻡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권능에 의해서 중생하여 의를 얻었다.²³³⁾

갈뻡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의’ 영광을 포함하는 전인(全人) 부활을 말한다. 갈뻡이 이해하는, ‘삼일 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란 자연법칙 아래에서 죽는 죽음을 뜻한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참 인간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며, 몸과 영을 받되 부패되지 않고 영화된 상태임을 말한다.²³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매장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치가 가득하던 십자가가 개선하는 전차로 변하듯이 자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얻으신 승리를 웅장하게 선포한다.”²³⁵⁾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갈뻡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심으로써 승리자의 상을 타셨으므로, 부활과 생명이 있게 하셨다.”²³⁶⁾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을 통하여 육체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 갈뻡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공포심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한 후에, 확실히 죽으신 이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중보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²³⁷⁾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고대 교회와 16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부인하였다. 갈뻡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아폴리나리우스와 단의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아폴리나리우스에게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이 있었으나 영혼은 없었고, 절반 사람에 불과하셨다. 아폴리나리우스

232) 위의 책, 123쪽.

233) Inst., II xvi 13.

234)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6쪽.

235) Inst., II xvi 6.

236) Inst., II xvi 13.

237) Inst., II xvi 13.

스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같이 생각했다.²³⁸⁾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를 ‘손상될 수 없는 신성과 손상될 수 없는 육체로 구성된 하나의 본성’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아폴리나리우스에게 예수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었다.”²³⁹⁾ 그러나 칼뱅은 복종하는 성향이나 의지는 영혼에 있다고 한다. 칼뱅은 단의론자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성에 따라서 원하신 일을 인간으로서도 원하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²⁴⁰⁾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상징적인 종류의 부활을 상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칼뱅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경험담은 영적인 부활인 동시에 무덤에서 부활한 텅 빈 무덤으로 하여금 부활의 첫 징조가 되게 하셨다.²⁴¹⁾

칼뱅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동시에 그의 부활에 속한 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⁴²⁾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²⁴³⁾ 칼뱅에 의하면 그의 『공관복음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가능케 하셨다. “그의 부활은 아무도 보지 않게 무덤에서 나오셔서 텅 빈 자리로 하여금 첫 징조가 되게 하셨지만, 그 후에 곧 천사들로 하여금 그가 살아 계시다는 점을 여자들에게 알리게 하셨다.”²⁴⁴⁾ 그리스도는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로 하여금 사도들에게 들려줄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사가 되게 하셨다.²⁴⁵⁾

238) Inst., II xvi 12.

239) Stanley J. Grenz, 신옥수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407쪽

240) Inst., II xvi 12.

241)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65쪽.

242) Inst., II xvi 13.

243) Inst., II xvi 13.

244)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511쪽.

245) 위의 책, 511쪽.

깎배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²⁴⁶⁾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그의 영의 능력을 행사하셨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다.²⁴⁷⁾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만 아들에게 특히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나눠주는 수종자와 청지기로 삼으셨다.²⁴⁸⁾ “그는 육신이 약하시므로 고난 받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²⁴⁹⁾ 그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적인 이해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기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²⁵⁰⁾ 이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의 부활을 통하여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다. 깎배는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의하여 ...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한다.²⁵¹⁾ “그의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²⁵²⁾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영의 선물들은 그리스도께서 맡아가지고 계신다.²⁵³⁾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을 것을 소생시키시려는 것이다.²⁵⁴⁾ 깎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신성을 확인해 주셨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의해서 ...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며, 그 때에 드디어 하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 권능은 그의 신성(神性)을 분명히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데서도 바울은 그는 육신이 약하시므로 고난을 받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246) Inst., II xvi 13.

247)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511쪽.

248) Inst., III I 2.

249) Inst., II xvi 13.

250)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511쪽.

251) Inst., II xvi 13.

252) John Calvin, 한인수 역, 『깎배의 요리문답, 1537』, 163쪽.

253) Inst., III I 2

254) Inst., III xxv 3.

다시 살으셨다고 같은 뜻으로 가르친다.²⁵⁵⁾

칼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기가 나타나신 때와 자기의 영원한 존재를 분명히 구별하시며, 자기의 권위는 아브라함의 권위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고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성에 고유한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⁶⁾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가졌으며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의 풍부한 은혜를 나눠주는 수종자와 청지기가 되었다.

칼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세에서 입고 있던 몸으로 부활함”을 말한다.²⁵⁷⁾ 칼뱅은 그의 『칼뱅의 요리문답』(1537)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해주는 현재적 부활(vivification presente)에 대한 확실한 진리요, 실체이며, 기초인 것”이라고 한다.²⁵⁸⁾ 칼뱅은 사도신경을 해설하며, 그의 부활을 통하여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며, 그와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뱅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겪으셨고, 그가 죽을 인간으로서 입으셨던 그 육신으로 영생불사를 받으셨다는 말이다.²⁵⁹⁾ 칼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의 일이 아니라, 위에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⁶⁰⁾

요약하면, 칼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과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全人)으로서 몸의 부활인데, 이 땅에서 죽을 몸이 아니라 영생불사

255) Inst., II xvi 13.

256) Inst., II iv 2.

257) Inst., III xxv 7.

258)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37』, 63쪽.

259) Inst., II xvi 13.

260) Inst., II xvi 13.

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부활인데, 성도들에게 칭의와 성화와 새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구원론적이며,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고유한 능력으로의 부활로서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의 부활이다. 어떤 피조계의 도움이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출생뿐만 아니라 부활, 전(全)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고대하며, 지상의 일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b.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우리는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갈뻡은 사도신경 해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으며,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고양상태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우선 갈뻡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한 뒤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다루기로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갈뻡에게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의 약속이다.²⁶¹⁾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받았다는 뜻인데,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어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말한다.²⁶²⁾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승천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며, 영원히 그와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갈뻡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지상에 우거하신 동안에는 미천한 육신을 집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만 계셨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믿는 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261) Inst., II xvi 14.

262)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뻡의 요리문답, 1537』, 64쪽.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며, 그의 나라를 확대하셨으며, 그의 큰 권능을 발휘하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며 원수들을 흠으셨다.”²⁶³⁾ 갈뱅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관계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고아같이 버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한다.²⁶⁴⁾

갈뱅은 『공관복음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몸으로는, 우리에게서 무진장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의 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한 세대만이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자신의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²⁶⁵⁾ 즉, 그리스도의 승천 후 그리스도의 육이 우리의 눈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도우심과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끝 날까지 돌보고 계시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현존의 능력을 보여 주신다. 갈뱅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날을 증진시켰으며, 원수들을 흠어 버리셨고, 지상에 계실 때보다도 효과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실현하셨다고 한다.²⁶⁶⁾

갈뱅에 의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로 천국을 열어 주셨다고 말한다.²⁶⁷⁾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에게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이 죽음은 우리 불완전의 종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갈뱅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며, 이 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그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지주요 능력이요 지옥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²⁶⁸⁾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263) Inst., II xvi 14.

264) Inst., II xvi 14.

265)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553-54쪽.

266) Inst., II xvi 14.

267)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6쪽.

268)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6-37쪽.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해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입구를 열어주신 것이다.²⁶⁹⁾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이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다.”²⁷⁰⁾

칼뱅은 『칼뱅의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인간의 이름과 우리 인간의 육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들어 가셨다”²⁷¹⁾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던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름과 우리 인간의 육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통하여 하늘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분과 더불어 하늘의 처소 안에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⁷²⁾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통하여 하늘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분과 더불어 하늘의 처소 안에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⁷³⁾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으로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이는 마치 우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아서, 이미 우리가 소망 중에 이 천국을 그분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후에는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 우리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²⁷⁴⁾

요약하면,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며, 우리의 승천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참함을 위하여 중보하시려 하늘로 들어 가셨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며,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269) 위의 책, 136-37쪽.

270) 위의 책, 130쪽.

271)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37』, 64쪽.

272) 위의 책, 63-64쪽.

273)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6쪽.

274) 위의 책, 136쪽.

2)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김균진에 의하면, 부활한 예수의 육체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하늘 저편에 앉아 계심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직위와 기능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한다. 고대 동방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권(全權)을 행사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휴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주권(主權)을 행사함을 뜻한다.”²⁷⁵⁾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편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피조세계의)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 즉 그의 이름을 그가 천지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또 하나님의 우편이 꼭 하늘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높이 오르사 하나님의 하늘 영광과 천사들 사이에서 영원히 복된 최고의 지위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²⁷⁶⁾ 즉, 칼뱅에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말한다.²⁷⁷⁾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전하시기 위해 만물의 왕, 재판관 그리고 주님으로 임명되셨으므로, 그 결과 그분의 통치와 영광이 우리의 힘, 능력 그리고 영광이 되어 우리가 지옥과 대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²⁷⁸⁾을 뜻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없이 당신의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며 저들에게 당신의 현존이 가지는 명백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칼뱅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지배권(seigneurie)을 받으셨음을 뜻하는데 이는 그분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한 것”으로 말한다.²⁷⁹⁾

275)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207쪽.

276)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155쪽.

277)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37』, 64쪽.

278) 위의 책, 64쪽.

279) 위의 책, 125쪽.

갈뻡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오른편’과 ‘앉아계심’은 “지상의 군주들로부터 취한 직유(直喻)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임명한 대리자들을 그들의 오른편에 앉힌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었으며, 모든 권세와 정사보다 더 높임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말한다.²⁸⁰⁾ 갈뻡은 “임금들이 정사를 맡기는 신하들을 자기 곁에 앉히는 데서 왔다”는 비유로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설명한다.²⁸¹⁾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지에 관한 주권을 받으시며, 위임된 정권을 엄숙히 장악하셨으며, 일단 차지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 날에 내려오실 때까지 통치를 계속하시리라고 해석한다.²⁸²⁾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갈뻡은 오른편에 앉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주권(主權)을 행사함, 통치, 정권을 장악함을 뜻한다고 말한다.²⁸³⁾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숭엄성을 경탄하며, 그리스도의 결정에 만사를 정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엡 1: 20-21),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엡 1:22) ...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숭엄성을 우러러보아 경탄하며,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 즉, 만사는 그리스도의 결정에 위임되었다고 했다.²⁸⁴⁾

갈뻡은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자세가 아니라, 그의 숭엄한 권위였기 때문이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늘 심판대에서 주재하고 계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²⁸⁵⁾고 설명한다.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갈뻡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에

280) 위의 책, 125쪽.

281) Inst., II xvi 15.

282) Inst., II xvi 15.

283)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207쪽.

284) Inst., II xvi 15.

285) Inst., II xvi 15.

대하여, 그의 능력으로 통치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지배권과 결정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 ‘오른편’이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 위임된 정권, 숭엄한 권위, 하늘 심판대에서 주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c.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갈벡에 의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몸과 영혼이 땅에서 하늘로 가시적, 장소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옮겨간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자로서 왕권을 이어받은 숭엄한 통치, 권력, 그의 현존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그때부터 신천 신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저리로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²⁸⁶⁾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리고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으로서 심판하실 때에는 ‘산 자’는 물론이지만,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한다.²⁸⁷⁾

갈벡은 ‘저리로서 오시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본 것과 똑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⁸⁸⁾ 갈벡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승천하신 때와 같이,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며,”²⁸⁹⁾ 구속자로서 영광스런 모습으로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한다.

그의 나라의 형언할 수 없는 숭엄성과 영생 불사의 광채와 신성(神性)의 무한한 권능과 함께 ... 수호 천사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 날에 저리로부터 우리의 구속자로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오시면 양과 염소, 선택된 자와 버림 받은 자를 분리하실 것이다. 나팔 소리가 땅 끝까지 울려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으로 부

286) 이종성, 『주기도문 · 십계명 · 사도신경』, 188쪽.

287) 위의 책, 191쪽.

288) John Calvin, 한인수 역, 『갈벡의 요리문답, 1537』, 65쪽.

289) Inst., II xvi 17.

를 것이니, 그 날에 살아 있는 사람들과 이미 산 자들 사이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모두 소집될 것이다.²⁹⁰⁾

다시 말하면, 갈뱅은 이중결과(유기된 자에 대한 영벌과 선택받은 자에 대한 상벌)을 말하고 있으며,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에 소집될 것이라고 한다. 갈뱅이 이해한 심판은 이중심판이다.²⁹¹⁾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실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위엄으로 하늘부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한다. 그 때에 아직도 살아 있는 자와 이미 죽어 데려간 자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모두에게 그들의 업적에 따라 신실하든지 혹은 신실치 못하든지 그 나타나는 대로 그가 갚아줄 것이다.²⁹²⁾ 갈뱅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는 자들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을 완악하고 눈이 어두운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오신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러 오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계의 심판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²⁹³⁾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열매를 이처럼 확대시키는 것은 그가 온 세계의 심판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뜻에서, 선과 악은 동일하지 않으며 각자에게 마련된 보상을 끝내 가져오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그는 의인들이 그들의 영광을 면류관을 받아쓰고 악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 그 나라의 상태는 정돈될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²⁹⁴⁾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산 자와 죽은 자, 악인과 의인의 심판과 관계된다. 의인은 면류관으로, 악인은 자초한 처벌을 받는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²⁹⁵⁾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중보자이

290) Inst., II xvi 17.

291)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7쪽.

292) 위의 책, 137쪽.

293) Inst., III xxv 9.

294) Inst., III xxv 9.

295) Inst., II xvi 18.

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맡아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정죄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은 훨씬 더 확실하다.”²⁹⁶⁾ 깔뱅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어 우리의 사건을 맡아 변호해 주시는 주님 이외의 어떤 다른 심판자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⁹⁷⁾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가 그 때에 심판장에서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것이다.²⁹⁸⁾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B.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munus triplex)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지자직(the prophetic office), 제사장직(the priestly office), 왕직(the kingly office)의 세 직분으로 나뉜다.²⁹⁹⁾ 벌코프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능적, 역사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체를 체계화시키기를 꺼린다.³⁰⁰⁾ 초기 교부들 중 몇몇이 이미 그리스도의 상이한 직분들을 언급하지만, 중보자의 세 직분을 구별하는 일에 중요성을 잘 인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깔뱅이다.³⁰¹⁾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삼중직의 구별은 신학의 불문율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직분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때로는 선지자직이, 때로는 제사장직이

296) Inst., II xvi 18.

297) John Calvin, 한인수 역, 『깔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26쪽.

298) Inst., II xvi 18.

299)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594쪽.

300) H. Berkhof, *Christelijk Geloof*, 284쪽, 최윤배, “개혁신학”(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2학기 강의안), 39쪽에서 재인용.

301)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593쪽.

우선되었으며, 왕직이 최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었다.³⁰²⁾ 갈뱅은 예언자, 왕, 제사장 순서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과 오토 베버는 예언자, 제사장, 왕의 순서로, 바르트는 제사장, 왕, 예언자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³⁰³⁾

벌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삼중직 직분을 위해 기름부음을 받으신 사실은 삼중직과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령론적을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³⁰⁴⁾ 갈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나 『갈뱅의 요리문답』(1537)에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직, 즉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갈뱅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사로서는 언급하지만, 이 교사직을 우리는 메시아적 또는 성령론적 삼중직으로 볼 수 없다.³⁰⁵⁾

갈뱅은 체계화된 삼중직의 분류는 『기독교 강요』(1536)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그는 초기에, 부처의 『공관복음주석』에서 삼중직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³⁰⁶⁾ 스트라스부르크(1538-1541)시절 부처의 영향으로 갈뱅은 1542년의 『갈뱅의 요리문답』과 최종판 『기독교 강요』(1559)에는 예언자직을 첨가하여, 삼중직(예언자, 왕, 제사장)을 나란히 언급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에 대한 회생이 없이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고 있다.³⁰⁷⁾ 갈뱅은 『기독교 강요』(1559) II xv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갈뱅은 삼중직의 용도와 목적을 ‘구원’의 근거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함으로서 삼중직분론을 영적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³⁰⁸⁾

최윤배는 교회사 속에서 교회와 교회의 직무가 그리스도와 그의 영

302) 위의 책, 594쪽.

303) 최윤배, “개혁신학”, 39쪽.

304)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594-95쪽.

305) 최윤배, “부처와 갈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 『서울장신논단』 제7호(1999), 142쪽.

306)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268쪽.

307) 최윤배,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최윤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83쪽.

308)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173쪽.

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두 반대진영과 논쟁이 있었다고 말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대신하여 성직자들(신부, 추기경, 교황 등)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존엄성을 빼앗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일부 개혁장로교회의 전통에서는 목사는 예언자직을, 장로는 왕직을, 집사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비판한다. 부처와 깔뱅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삼중직 자체를 교회의 직무와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³⁰⁹⁾ 교회의 직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무시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일부 개혁장로교회와는 정반대로, 종교개혁당시 재세례파 등을 비롯한 열광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인제사장직의 이름으로 교회의 직무를 무시했다.³¹⁰⁾ 그러나 부처와 깔뱅은 만인제사장직을 기독교론과 결부된 성령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³¹¹⁾ 깔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명하신 삼중직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으셨다.³¹²⁾

그것은 고대의 왕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가시적인 기름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야말로 과거에 행해졌던 외적 기름부음의 실체(verite)라는 것이다.³¹³⁾

깔뱅은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모든 은혜와 함께 뿌려진 것”³¹⁴⁾이라고 한다. 깔뱅에 의하면, 삼중직 안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삼중직의 열매와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다고 말한다.³¹⁵⁾

그러므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견고한 기초를 발견하여, 그에게

309)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3-44쪽.

310) 위의 책, 44쪽.

311) 위의 책, 44쪽.

312)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3쪽.

313) John Calvin, 한인수 역, 『깔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10쪽.

314)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3쪽.

315) John Calvin, 한인수 역, 『깔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10쪽.

신뢰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긴 직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는 까닭이다.³¹⁶⁾

우리는 본장에서 깔뱅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 순서로 논의 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별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과 이후에도 그의 교훈과 이적,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통해서 그의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³¹⁷⁾ 그리스도는 예언자로서, 언어 전달로서만이 아니라 성육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등 계시된 사실들로써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예표와 의식, 구속사의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적 인도의 형태로 가르치셨다.³¹⁸⁾ 김균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³¹⁹⁾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언자들처럼 단지 하나님에게서 받아 대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말씀이다. 그는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육신된 말씀이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시다.³²⁰⁾

깔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³²¹⁾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히1:1),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³²²⁾라는 말씀 안에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모

316) Inst., II xv 1.

317)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 이상원 역, 『별코프 조직신학(하)』, 596쪽.

318) 위의 책, 596쪽.

319)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270쪽.

32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 이상원 역, 『별코프 조직신학(하)』, 596쪽.

321) Inst., II xv 1.

든 계시의 최고의 완성이니 신자들은 예언자를 기다리라고 한다.(단9:24) 갈
 뱃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
 신다. 직무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직무를 가능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
 의 영이라는 것이다.³²³⁾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상 생
 애에서 이룩하신 말씀 사역(예언자)을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효력적으로 계속하심으로써, 왕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³²⁴⁾

갈뱃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유는 교회론
 적 모티브가 있다.³²⁵⁾ “그가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위해서 받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³²⁶⁾ “성령은 모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샘물이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주의 손으로 묘사되었다.”³²⁷⁾ 즉, 그리스도는 성령으
 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의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갈뱃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서 주셨다고 한
 다.³²⁸⁾ “그의 안에 지식과 총명의 모든 보화가 숨겨있다(골2:3)”고 할 때,
 그는 조금 다른 뜻을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은혜
 의 무한한 전체를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때문에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내가 ...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귀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
 엄은 그가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³²⁹⁾

322) Inst., II xv 1.

323)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과 목회』, 44쪽.

324) 위의 책, 44쪽.

325) Inst., II xv 2.

326) Inst., II xv 2.

327) Inst., II xv 3.

328) Inst., II xv 2.

칼뱅은 그의 『공관복음주석』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씀에서 ‘아들’이란 말은 그가 다른 종들보다 우월하심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칭호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선생’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며,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를 교회 안에서 가장 높고 특이한 참 선생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⁰⁾ 칼뱅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이 우리의 주와 스승되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의 생도요 가솔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³³¹⁾

2.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어서 땅과 하늘의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분이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마지막 날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다. 니젤에 의하면, 칼뱅은 제2의 지위(地位)를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왕직으로서의 주권과 관련시켜 메시아라는 이름을 갖는다.³³²⁾ “그의 왕국의 주권은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흡족히 베푸시기 위하여 가지신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증거하신다.”³³³⁾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1536) 초판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 천지의 모든 권세를 다스린다고 말한다.³³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 말한다.³³⁵⁾

329) Inst., II xv 2.

330)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118쪽.

331) 위의 책, 118쪽.

332) 빌헬름 니젤,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4쪽.

333) 위의 책, 114-15쪽.

334)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3쪽.

335) 위의 책, 133쪽.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의 승귀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다. ... 부처와 마찬가지로 갈뱅에게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직이며, 이를 지향하는 이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제사장직을 유지한다.³³⁶⁾

갈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삼중직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왕직이 강조점을 얻고 있다.³³⁷⁾ 그의 왕국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독자들이 이해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하여 언급해도 무용할 것이다.³³⁸⁾ 갈뱅이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특별히 성령론적으로 규정된다는 말이다. 갈뱅은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격은 영원성에 있다고 말한다.³³⁹⁾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아들의 손을 거쳐서 자기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신다. 이 예언의 실현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다.”³⁴⁰⁾ 즉,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을 통하여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신다’는 뜻이다. 갈뱅에 의하면, 교회는 격렬한 동요로 끊임없이 고통하며 무섭고 비참한 폭풍들이 무수한 재난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한다.³⁴¹⁾

아무리 많은 강적들이 교회를 전복할 음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신 그 확고부동한 결정을 전복시킬 힘은 그들에게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악마는 세계의 총력을 동원하더라도 교회를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를 토대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³⁴²⁾

갈뱅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고 말한다.³⁴³⁾

336) 최윤배, “부처와 갈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 『서울장신논단』 제7호(1999), 142쪽.

337)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83쪽.

338) Inst., II xv 3.

339) Inst., II xv 3.

340) Inst., II xv 3.

341) Inst., II xv 3.

342) Inst., II xv 3.

343) Inst., II xv 5.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를 아버지의 대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으며, 이 대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가진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테면 간접적으로 통치하며 보호하기로 정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설명한다.³⁴⁴⁾

갈뱅에 의한 그리스도의 왕직은 구원론적 모티브가 있다.³⁴⁵⁾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全) 생애를 통하여 왕이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해방자’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사 사탄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가두어 둔 청동의 문을 파괴했다. 우리의 죽음을 면케 하기 위해서 그가 이룩하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³⁴⁶⁾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풍부히 주시며, 영적 원수들의 모든 공격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로 백성의 방위력을 강화하신다. 이것을 보면 그는 내외 양면으로 통치하실 때에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⁷⁾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종말론적 모티브가 있다.³⁴⁸⁾

그가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목자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처럼 ... 그 반대로 그는 모든 자만한 자와 반역자들을 질그릇 같이 깨고 쳐부술 철장과 홀을 지니신다. ... 우리는 이미 이것의 실례를 보았으나 그 완전한 능력은 마지막 날에 나타 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최후 통치 행위가 될 것이다.³⁴⁹⁾

344) Inst., II xv 5.

345) Inst., II xv 3.

346) Inst., II xv 2.

347) Inst., II xv 4.

348) Inst., II xv 3.

349) Inst., II xv 5.

칼뱅은 우리 각 개인은 ‘영원성’에서 영감을 받아 축복된 영생불사를 바라보아야한다고 말한다. 지상적인 것은 모두 이 세상과 시간에 속했으며, 참으로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들어올리기 위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언명한다.³⁵⁰⁾ 칼뱅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의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미치며, 그들의 완악한 모반을 파괴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그의 통치권이 최후 통치 행위가 될 것이라고 중 말론적으로 해석한다.³⁵¹⁾

3.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최윤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겸비와 고양 상태 모두에 해당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 • 승천하셔서 자신의 지상 생애에서 이룩하신 제사장직을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효력적으로 계속하신다고 한다.³⁵²⁾ 니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력은 중보자와 화해자라고 한다.³⁵³⁾ 중보자라 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죄를 속하며, 흠과 티가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다 의로우신 저주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총애를 얻어야했다.³⁵⁴⁾ 그리스도가 화해자라 함은 “그의 화목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신과의 어떠한 교제도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가 그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의 은총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³⁵⁵⁾는 것이다. 니젤에 의한 화해란 신은 불가사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

350) Inst., II xv 3.

351)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268-69쪽.

352)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과 목회』 44쪽.

353)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5쪽.

354) 위의 책, 115쪽.

355) 위의 책, 115쪽.

랑하는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대하여 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자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증오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³⁵⁶⁾

니젤과 마찬가지로 칼뱅은 제사장직에 관하여 화해와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고 말한다.³⁵⁷⁾

제사장직에 관하여는 간단히 말할 수밖에 없다. 제사직의 목적과 효과는 그리스도가 모든 흠에서 정결케 하는 중보자이며, 그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나님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용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였다. ... 그의 죽음을 통한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벌책을 없게 하고, 그는 우리의 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까닭이다.³⁵⁸⁾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를 만인제사장직에 동반자가 되게 하셨다.³⁵⁹⁾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무를 통해)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시는 중보자(Mediateur)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를(= 그 직무)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그 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³⁶⁰⁾

칼뱅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과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³⁶¹⁾고 말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³⁶²⁾ 칼뱅은 우리 자신과

356) 위의 책, 115-16쪽.

357) Inst., II xv 6.

358) Inst., II xv 6.

359)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12쪽.

360) 위의 책, 112쪽.

361) Inst., II xv 6.

362) Inst., II xv 6.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에게 바치며, 자유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며 향기롭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원래 가증한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성결이 몸에 가득히 배어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다.³⁶³⁾

칼뱅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제도를 비판한다.³⁶⁴⁾ 로마가톨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리스도를 새로이 이 제물로 바치노라고 하며, 날마다 이 짓을 지도하며,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노라하는 것을 비판한다.³⁶⁵⁾ 결국, 칼뱅은 삼중직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도 속에서 항상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교회와 세상에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을 예언자로 선포하고,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영화롭게 해야 한다.³⁶⁶⁾

363) Inst., II xv 6.

364) Inst., II xv 6.

365) Inst., II xv 6.

366)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과 목회』, 44-45쪽.

V. 결론

A. 요약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각론들, 즉,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독교론이 더 중요하다. 칼뱅 신학에서도 기독교론이 그의 신학의 일어서고 넘어짐의 기초가 되고 있다.

칼뱅이 이해한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 신구약의 유사점과 동시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신약과 구약은 내용상, 본질상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은 형식상, 정도면에서, 그리고 비교급상으로, 하나님의 경륜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방법상의 차이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 유사점은 동일한 삼위일체 한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백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고대교회 당시에 마르시온주의자나 제세레파나 마니교도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칼뱅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상호 대치나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칼뱅은 유대주의나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신약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칼뱅에 의하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vere Deus)신 동시에 참 인간(vere homo)이시며, 두 본성이 연합되어 한 인격(one Person in two natures)을 이룬다. 즉 혼돈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첫 사람이 타락하였으므로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난 말씀이 인성을 취하여 위격(hypostasis)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영혼은 육체가 아니며, 육체는 영혼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사람에게에는 합하여 한 인격을 구성하는 별다른 두 본질이 있다.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에 잉태되시고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죄는 없으시다.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나시며,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아버지에게 바치신 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 중보자직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활동하시며 직책을 수행하신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 분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실 필요에 의해서 중보자로서 참 인간성과 무염수태로 참 하나님이심으로 구속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갈뱅은 참 인간성을 반대하는 마니교, 마르시온, 재세례파, 로마가톨릭과의 논쟁을 했다. 그리스도의 위격의 단일성을 파괴하는 유티커스와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한다. 갈뱅에 의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불린다. 즉,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대신한다.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동시에 구속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 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다.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중상태(status duplex), 즉 겸비상태와 승귀상태로 기술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겸비상태는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이며 음부에 내려가심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영광을 포기하셨다. 그는 인간들과 똑같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으며,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순종이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아래 놓였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심으로 성령의 담지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성화의 능력이 있으며, 성령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이다.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는 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론적으로 정향되어 있다. 부활·승

천 이후에 그리스도는 교회에 임하셔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활동하시며 교회론적이다.

갈뱃은 그리스도의 참 인간성과 무흠 문제로 인하여 마니교도, 마르키온, 제세레과, 세르베투스, 로마 가톨릭과 논쟁을 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무오성과 신인성이 필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담지자요 성령의 수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삼위일체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역사한 사건임을 암시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초대 교회 당시에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등장해서 예수의 역사성과 인성을 분명히 하는 증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의 제물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지하셨다.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겪으셨으며, 그가 죽을 인간으로서 입으셨던 그 육신으로 영생불사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의 무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역사적, 지질학적 장소이다.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으며, 그의 무덤은 그를 삼켜 버렸으며, 장사지낸바 되었다.

갈뱃에게서 ‘음부에 내려가심’은 그의 몸은 무덤 속에 있었으나 실로 지옥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말한다.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정의를 만족하심이라고 말한다.

갈뱃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심판과 재림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이고, 영적·육체적인 형태

로서 전인(全人)으로서 몸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과 저주가 말살되며 우리는 확실한 부활을 얻을 것이다.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유익은 칭의, 성화, 영화, 새 생명이다. 칼뱅은 아폴리나리우스와 단의론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의 약속이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문제로 그들을 위로하며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주권(主權)을 행사함, 통치, 정권을 장악함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만물의 왕,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분의 통치와 영광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가 지옥과 대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아 있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승천하신 때와 같이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며, 구속자로서 영광스런 모습으로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이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완악하게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시므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 2권 15장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왕직, 제사장직, 예언자직)을 논하고 있다. 특히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고 있다.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은 왕직의 기초와 근거가 되고 있다. 삼중직의 용도와 목적을 구원의 근거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 강요』(1536) 초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체계화시켰다. 그는 초기에 부처의 『공관복음주석』에서 삼중직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서 그의 삼중직은 성령론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자신이 지상 생애에서 이룩하신 말씀사역(예언자)과 구속사역(제사장)을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효력적으로 계속하심으로써, 왕의 직무를 지금도 수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직무를 사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직무를 가능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대신하여 성직자들(신부, 추기경, 교황)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판한다. 칼뱅은 만인제사장직을 기독교론과 결부된 성령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를 만인제사장직에 동반자가 되게 하셨다.

B. 평가

첫째, 칼뱅의 기독교론은 그의 신학의 왕관이며, 그의 신학이 일어서고 넘어짐이 될 수 있다. 그의 기독교론은 성서적이며, 성령론적이며, 교회론적이며, 종말론적이며, 목회적, 선교 실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최근에도 신약시대라고 주장하며 구약을 무시하는 세대주의자들이나, 마르시온주의자나, 재세례파나 마니교도들과 같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칼뱅의 기독교론을 통해서 신·구약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은 분명하게 신·구약 성서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백성을 말한다. 칼뱅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상치나 대치로 보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은 형식상, 정도면에서, 하나님의 경륜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6세기에 구약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로마 가톨릭교회의 율법주의적 경향과 구약을 지나치게 무시했던 재세례파적 경향을 떠 오늘날의 일부 교회와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근거를 칼뱅은 제시한다.

셋째, 최근에도 가현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중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칼뱅에 의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vere Deus)과 참 인간(vere homo)이시며, 두 본성이 연합하여 한 인격(one Person in two natures)을 이룬다. 그리스도는 양성이 혼돈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오직 참 인간이 되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분이 된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담지자가 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허락하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시며, 성령의 수여자가 되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분이시다.

다섯째, 요즈음엔 목회현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목소리가 사라져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칼뱅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최후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재림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이다. 칼뱅은 또한 만인제사사장직을 기독교론과 결부된 성령론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교회의 직분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만인제사사장직의 중요성도 유지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직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무시하고,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 등 열광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이름으로 교회의 직무를 무시했다. 만인제사사장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도 속에서 항상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교회와 세상에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을 예언자로 선포하고,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왕 중의 왕으로 영화롭게 해야 한다.

여섯째, 비록 칼뱅은 16세기 당시에 새로운 기독교론을 창조하거나 전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중세교회에 의해서 왜곡된 비성경적인 기독교론을 비판하고, 교정시키기 위해서, 고대교회의 전통, 특히 고대 교회 에큐메니칼 신조에 나타난 기독교론을 재발견하여, 채질하고, 정선하여 명실공히 전통적 기독교론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일곱째, 깔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사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라고 설부른 결론을 내렸다. 오늘날의 성서주석에서 ‘인자’는 천상적인 존재내지 인물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사용한 ‘인칭’에 속하며, 장차 오셔서 고난 받으실 고난 받는 종을 뜻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A. 동양서적

-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Vol.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 이종성. 『주기도문·십계명·사도신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_____. 『조직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4.
- 이장식. 『기독교신조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이형기.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윤철호. 『그리스도론(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정홍열. 『사도신경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_____.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처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_____.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0.
- _____.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_____. “부처와 깔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 (편). 『서울장신논단』 제7호, 1999.
-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신학해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현요한. 『성령, 그 다양한 얼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B. 서양서적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John T. McNeill
2 vol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5.

Kuyper, A.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46.

C. 번역서적

Berkhof, Louis. *Systemetic Theology* Vol. I, 권수경·이상원 역
(상),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_____. *Systeme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하),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Bloesch, Donald G.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1 이형기·
이수영 역, 『복음주의신학의 정수』 1. 서울: 한국장로교출
판사, 1999.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ord Lewis
Battles,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1536』. 경기도: 크리스
찬다이제스트, 2002.

_____.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 1537/ 1541/ 1542』. 서울: 도서출판경건, 1995.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외 3인 공역.
『기독교강요』 (1559),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_____. *The Calvin Commentary*,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
역, 『공관복음주석』, 서울: 성서원, 2003.

Stanley J. Grenz, 신옥수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Wendel, F. *Calvin*, 김재성 역, 『갈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Wi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D. 논문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미간행 신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1999.

박계순. “갈뱅의 성령론,” 미간행 목회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5.

방선영. “갈뱅의 교회론,” 미간행 목회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5.

이문규. “갈뱅의 성령론,”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9.

한경훈. “칼빈이 본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신성론,” 미간행 석사학위(M. Div.)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1.

원식연. “종교다원주의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5.

현요한. “칼빈의 교회론: 성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86.

E. 기타

최윤배. “갈뱅,”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2학기 강의안.

_____. “복음주의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2학기 강의안.

한국기독교학회(편). 『신앙과 신학』 제7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한국복음주의신학회(편). 『성경과 신학』 제11집. 서울: 기독지혜사, 1992.